

## 서부 경남지역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전승과 변이양상\*

이 성 훈\*\*

### <Abstract>

**Lee Seong-hun. 2005. *Transmission and Variation of <Women Divers' Rowing Song> in Western Gyeongnam Province.*** This study is on transmission and variation of <Women Divers' Rowing Song> in Western Gyeongnam Province. In 1889, women divers in Chejudo came to the mainland to work for certain period in Cheongsando, Wando, Busan, Yeongdo, Geojedo, Dolsan, Gijang, Wolsan and even in Gyeongbuk Province. In the sense, it is safe to say that the women divers from Chejudo began to temporarily leave their home for other work places as early as the late 19C in earnest, and accordingly <Women Divers' Rowing Song> also began to spread to the mainland at that time. As for Geoje City and Sacheon City in Western Gyeongnam Province, rowing a boat singing <Women Divers' Rowing Song> continued till the late 1960s when a power boat was newly introduced.

Women divers, who were born in Chejudo and moved to Western Gyeongnam Province for work, learnt <Women Divers' Rowing Song> when swimming to the workplace on the coast from Chejudo or when rowing to the workplace in new working environment. Most of the women divers who settled in Western Gyeongnam Province turned out to learn the song when working in the mainland after leaving their home town.

Women divers who had learnt <Women Divers' Rowing Song> when swimming to work in Chejudo sang only fragmentary part of the song. It is because the distance they had to swim from the seashore to their workplace on the coast was short and they had to sing in waves, with only short time to sing <Women Divers' Rowing Song> available.

On the contrary, those who had learnt <Women Divers' Rowing Song> when going

---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AS2027)

\*\*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교사, 숭실대학교 강사

to their workplace from the mainland by boat could sing relatively longer part of the song. It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y rowed to small islands on the coast for relatively longer time in Western Gyeongnam Province, with longer time to sing. The song could be even richer depending on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singer, which is believed to be correlated to singer's words-creating ability and singing ability.

The words of <Women Divers' Rowing Song> passed through in Western Gyeongnam Province showed several features, such as variation in nouns, connective suffixes of inflected words, and auxiliary words, as well as the refrain changed into 2 metrical foot structure.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singers, who were born in Chejudo but lived in Gyeongnam Province for long time or who were born in Gyeongnam Province and shortly lived in Chejudo but whose parents were from Gyeongnam Province, were under linguistic environment where they could easily learn dialect of Gyeongnam Province, thus tended to sing <Women Divers' Rowing Song> in Gyeongnam Province dialect.

Hyeon Jong-sun was an active singer who could add new content to the original words of <Women Divers' Rowing Song> transmitted in fixed words, to make a complete structure of parallelism, while Yoon Mi-ja had excellent words-creating and singing ability, by dividing <Women Divers' Rowing Song>, which had been generally sung in a phrase, into two phrases and by extending the words.

주제어: Women Divers' Rowing Song(해녀 노 짓는 소리), transmission(전승), variation(변이), refrain(후렴구), singing ability(가창능력)

## 1. 머리말

서부 경남지역은 남해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진주시 등을 포함한 지역을 통칭한다. 이들 지역은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본토에 전승되는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부경남 제주도민연합회는 거제, 남해, 삼천포, 남해, 진주도민회로 5개 단위 도민회를 연합하고 있으며, 특히 통영지역의 제주출신 해녀 200여 명이 1999년 9월 16일 국내 최초로 사단법인 통영나잠제주부녀회를 설립하였다. 지역별 거주 현황은 거제 800명, 남해

200명, 사랑 80명, 삼천포 800명, 진주 400명, 통영 2000명, 기타 720명 등 5000 여명이다. 주로 수산업을 생계로 함으로 통영, 거제, 삼천포, 남해의 해안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나잡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는 12% 남짓이다.<sup>1)</sup>

<해녀 노 젓는 소리>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본토의 모든 해안 지역에도 전승되고 있는데, 현재 裸潛漁業에 종사하는 제주출신 해녀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은 서부경남지역이다. 따라서 서부경남지역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전승과 변이양상을 고찰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존의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대한 논의는 제주도에서 채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본토에 정착한 해녀들로부터 <해녀 노 젓는 소리>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sup>2)</sup> 수집된 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속초시·삼척시 등에 한정돼 있다는 데 기인한다. 본토에 정착한 해녀들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양이 零星한 것은 돛배의 橈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해녀의 수는 극소수만이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민요 소리꾼은 생활의 담당자이면서 구연의 주체이다. 그런 만큼 제보자의 생애가 구연한 민요의 사설 속에 부분적으로나마 투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소리꾼 개인이 구연한 민요 사설의 이해를 위해서도 제보자 개인의 생애 연구는 요청되는 것이다. 그간 제보자 생애

1) 필자채록, 경남 사천시 서금동, 2004. 4. 25. 이창조(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 회장).

2) 현재까지 본토에서 채록한 <해녀 노 젓는 소리> 자료가 학계에 보고된 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속초시·삼척시 등이다. 수록된 자료의 출처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집》, 울산대학교출판부, 1990; 강원도 동해출장소,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 강원도, 1995; 강환호, <해녀 민속 문화의 이동에 관한 연구 -경남 사랑도의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속과 문화》, 부산남구민속회, 2001; 李東喆, 《江原 民謠의 世界》, 국학자료원, 2001;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젓는 노래> 조사>, 《韓國民謠學》 第11輯, 韓國民謠學會 2002;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崇實語文》 第19輯, 崇實語文學會, 2003.

력과 출가물질 사례의 조사는 많은 진척이 있었다.<sup>3)</sup> 제보자에 대한 조사 연구의 토대 위에서 민요 사설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연구가 가능한 것이라면 제보자에 대한 독자적 연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제보자 연구는 기록문학의 작가 연구와도 같다.

판소리는 전승에 관한 특정인으로부터의 전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민요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민요는 특정인에 의해 전수 받고 전승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판소리 창자의 판소리에 관한 학습의 계통과 내력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구체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민요의 창자는 판소리와는 달리 전문소리꾼이 아닌 일반 민중이고, 노동을 하면서 민요를 듣고 배운 게 전부이므로, 민요의 전승과정과 제보자에 대한 연구는 난해하다.

민요 제보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조동일의 《서사민요연구》에서부터이다.<sup>4)</sup> 이러한 조동일의 견해는 민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개별 제보자의 생애와 민요의 전승양상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기보다는 민요 전승론의 관점에 한정시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본격적인 제보자 연구로는 나가지 못했다. 개별 제보자의 생애와 민요에 대한 관심은 이성훈,<sup>5)</sup> 나승만,<sup>6)</sup> 강진옥<sup>7)</sup>에 의해

3) 金榮敦·金範國·徐庚林,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한림화, 《제주바다 潛嫂의 四季》, 한길사, 1987;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崇實語文》 第19輯, 崇實語文學會, 2003; 김영·양정자, 정광중·좌혜경 譯, 《바다를 건너는 조선의 해녀들》, 도서출판 각, 2004.;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구술(口述)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도, 2004.

4) 趙東一, 《敍事民謠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pp. 127-150.

5) 李性勳, <민요 제보자의 생애와 사설>, 《白鹿語文》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6) 나승만, <신지도 민요 소리꾼 고찰>, 《도서문화》 14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6; 나승만, <노화도 민요 소리꾼들의 생애담 고찰>, 《도서문화연구》 17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7; 나승만,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 조사와 사례 분석>, 《口碑文學研究》 제7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나승만, <삶의 처지와 노래 생산 양식의 상관성>, 《島嶼文化》 제16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8; 나승만, <전남 내륙지역 민요 소리

이루어졌다.

본고는 서부경남지역에 정착한 제주출신 해녀와 본토출신 해녀의 생애와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을 통해 <해녀 노 젓는 소리>의 본토 전파와 전승양상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생애력을 토대로 먼저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전승양상을 본토 전파 시기, 가창기연의 단절 시기,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우게 된 동기 등을 살펴본 다음에, 둘째로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변이양상을, 셋째로 통영시에 거주하는 현종순과 거제시에 거주하는 윤미자를 중심으로 창자의 특성과 사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5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서부경남지역이다. 공동 답사한 기간은 2005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다.

## 2.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전승양상

### 2.1 본토 전파 시기와 가창기연 단절 시기

서부경남지역의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전승 양상을 논의하려면 그 형성문제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구비문학의 모든 갈래가 그렇듯이, 제주도 민요인 <해녀 노 젓는 소리>도 언제부터 제주도에서 불리워지기 시작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錦南 崔溥(1454~1504)의 <耽羅詩 三十五絶> 중에 二十絶<sup>8)</sup>를 통해서 적어도 15세기에는 <노 젓는

---

꾼의 생애담 분석과 전통민요의 전승맥락>, 《우리말글》 통권27호, 우리말글학회, 2003.

7) 강진옥, <여성 민요 창자 정영업 연구>, 《口碑文學研究》 제7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8) 底處一聲送櫓歌 逐船來趁疾於梭 蓬窓揭了問前程 館在朝天影蘸波 배 밑에서 한 목소리로 배 젓는 노래 / 마중 나온 배 북과 같이 빨리 다가와 / 봉창을 걷어 올려 앞길이 얼마인지 묻노라니 / 조천관(朝天館) 초루의 그림자 물에 비

소리>가 제주도에서 불리워졌다는 단초를 제공한다. 물론 二十絶시의 “櫓歌”가 현재 전승되고 있는 <해녀 노 짓는 소리>라고 단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櫓歌”는 格軍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관리나 사신을 싣고 제주도와 본토를 오가는 뚝배의 노를 저었던 자가 바로 격군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櫓歌”가 현재 전승되고 있는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원형일 것이라고 본다. <해녀 노 짓는 소리>는 해녀뿐만 아니라 뱃사공도 같은 가락과 사설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해녀만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7세기 李健의 《濟州風土記》(인조 7년, 1629년)에 보면 남녀가 어울려 미역과 전복을 채취했다는 기록이 있다.

해산(海産)에는 단지 생복(生鰯), 오적어(烏賊魚), 분곽(粉藿), 옥두어(玉頭魚) 등 수종이 있고, 이외에도 이름 모를 수종의 물고기가 있을 뿐으로 다른 어물(魚物)은 없다. 그 중에서도 천(賤)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潛女)라고 한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 그 미역을 캐낼 때에는 소위 잠녀가 빨가벗은 알몸으로 해정(海汀)을 편만(遍滿)하며, 낫(鎌)을 갖고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올리는데, 남녀가 상잡(相雜)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생복을 잡을 때도 역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9)

위 기록으로 볼 때 물질 작업은 해녀만 한 게 아니라 남녀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해녀 노 짓는 소리>는 원래 사공이 부르는 던 것을 제주도에서 뱃물질 나갈 때나 본토로 출가할 때,

치네(李 增,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p. 210). 이 시는 崔溥가 1488년 1월 濟州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왔을 때 지었다(李元鎮, 김찬흡 외 7인 譯, 《譯註 耽羅志》, 푸른역사, 2002, p. 196).

9) 海産只有 生鰯 烏賊魚 粉藿 玉頭魚等數種 又有名不知數種外 更無他魚. 其中所賤者藿也 採藿之女 謂之潛女. 自二月以後至五月以前 入海採藿 其採藿之時 則 所謂潛女 赤身露體 遍滿海汀 持鎌採海 倒入海底 採藿曳出 男女相雜 不以爲恥 所見可駭 生鰯之捉亦如之(李 健, 金泰能 譯, <濟州風土記>,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 198).

사공이 부르는 “이어도사나” 또는 “이어싸나”와 같은 후렴을 해녀들이 모방하면서 자신들의 한탄스런 삶을 사실로 엮어서 불렀다고 보는 게 필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서 <해녀 노 짓는 소리>가 불리워졌는지 그 형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본토에서의 형성시기와 가창기연의 단절 시기를 통한 전승양상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해녀 노 짓는 소리>의 본토 전파와 형성 시기는 제주도 해녀의 본토 출가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康大元은 1889년경에는 靑山島를 비롯하여 완도, 부산, 영도, 거제도, 남해의 돌산, 기장, 울산, 경북 일대까지 出稼하였다고 했다.<sup>10)</sup> 본토 출가 제주 해녀에 대한 언급은 《개벽》제39호(1923년 9월 1일)에 乙人의 <盈德은 엇더한 지방?><sup>11)</sup>, 《삼천리》제1호(1929년 6월 12일)에 金料白의 <女人國巡禮, 濟州道海女><sup>12)</sup>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주 해녀들의 본토 출가물질은 늦어도 19세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해녀 노 짓는 소리>도 이 때부터 본토로 전파되었다고 본다. 제주 해녀들이 본토로 출가할 때나 본토 연안의 섬으로 물질작업 나갈 때는 돛배를 이용했는데, 이때 노 짓는 동작에 맞추어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2005년 현재 서부 경남지역에서 <해녀 노 짓는 소리>가 전승되는 지역은 사천시 서금동·동금동, 통영시 사랑면·미수동, 거제시 남부면·장목면·장승포동·능포동 등지이다.

다음으로 <해녀 노 짓는 소리>의 가창기연은 돛배의 노를 짓는 노동을 할 때이다. 돛배가 발동선으로 대체됨으로 말미암아 <해녀 노 짓

10)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3, p. 43.

11) 乙人, <盈德은 엇더한 지방?>, 《開闢》 제39호, 開闢社, 1923, p. 119. ‘해녀들의 활동’에 대한 단편적인 글이 실려 있다.

12) 金料白, <女人國巡禮, 濟州道海女>, 《三千里》 創刊號, 三千里社, 1929, pp. 22-23. 여기서 필자 김두백은 “꽃가튼 二萬 裸婦가 굴개며 勞動하는 勇姿. 안해가 남편을 먹여 살리나? 그네의 덩조판림은 엇든가?”라는 서두로 ‘해녀의 外樣, 작업실태, <해녀 노 짓는 소리>의 구연 현장, 출가지에서의 삶’ 등에 대해 보고 들은 바를 기술하고 있다.

는 소리>의 가창기연이 단절된 시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점이는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도에서 태어났는데, 양친은 모두 제주도 출신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에 거주하는 우점이의 제보에 의하면,<sup>13)</sup> 지금은 사천시 서금동 八浦선착장에서 동력선을 타고 뱃물질 나가지만, 1968년까지는 뚝배를 타고 노를 저어 사천시 八浦 앞바다에 산재한 늑도, 신수도, 마도, 딱섬, 신섬 일대로 뱃물질 나갔다고 한다. 또한 사천시 서금동 삼천포항에서 신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력선으로는 20분 정도이고, 뚝배로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윤계옥은 제주도 우도면 출생했고, 양친 모두 제주도 출신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에 거주하는 윤계옥의 제보에 의하면,<sup>14)</sup>은 27살 되던 해인 1943년까지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불렀다고 했다. 윤계옥과 우점이가 구연한 사설을 의미단락별로 나눈 각편의 수는 각각 2편과 5편이다.

우춘녀는 제주도 우도면에서 태어났고, 양친 모두 제주도 출신이다.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에 정착한 우춘녀의 제보에 의하면,<sup>15)</sup> 물질은 7살에 배우기 시작했고, 제주도 우도면에서는 뚝배를 타본 적이 없다고 했다. 21살에 초용으로 남해도와 울산에 출가물질을 나왔는데 동력선을 타고 뱃물질 다녔다고 했다. 27살에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27살 무렵부터 약 5년 동안(1963년부터 1968년까지) 장목면 송진포리 宮農마을 포구 앞바다에 있는 백도, 이수도, 학섬으로 뚝배를 타고 뱃물질 나갔다고 하며 <해녀 노 짓는 소리> 이때 배웠다고 했다. 송진포리 궁농마을 포구에서 백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력선으로는 15분 정도이고, 뚝배로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이수도까지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력선으로 10분 정도이고, 뚝배로는 40분~45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끝으로 학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력선으로는 6분 정도이고, 뚝배로는 20~25분 정도 걸

13) 필자 채록, 경남 사천시 서금동, 2005. 1. 10. 우점이, 여·69세.

14) 필자 채록, 경남 사천시 동금동, 2005. 1. 10. 윤계옥, 여·77세.

15) 필자 채록, 경남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2005. 1. 12. 우춘녀, 여·69세.

린다고 한다.

김수녀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리에서 태어났고, 양친 모두 제주 출신이다.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장승포에 정착한 이수녀의 제보에 의하면,<sup>16)</sup> 10살 무렵부터 해수욕 다니며 헤엄치는 것을 배웠고, 물질은 17~18세 때부터 배웠다. 20살에 결혼하여 제주에서 살다가 26살에 초용으로 거제시 능포로 출가 물질을 왔다. 27살에 거제시 장승포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제주도에 있을 때는 돛배를 타고 뱃물질 나간 적이 없기에 <해녀 노 젓는 소리>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 거제시 능포에서 약 1년 동안 돛배를 타고 뱃물질 다닌 적이 있고, 27살 되던 1959년에 거제시 장승포로 이주해서도 약 1년간 돛배를 타고 뱃물질 다녔다고 한다. <해녀 노 젓는 소리>는 이때 들었는데, 노를 저으며 불러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선배 해녀들은 노 젓는 게 서툰 김수녀에게 노를 젓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 후 1960년부터는 동력선을 타고 뱃물질 다녔는데, 70살까지 물질했다고 한다.

위의 사례로 볼 때 서부경남지역 중에 거제시와 사천시의 경우,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가창기연인 돛배의 노 젓는 노동은 1960년대 말까지 이어졌고, 그 후는 동력선의 등장으로 단절됐다고 하겠다.

## 2.2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우게 된 동기

해녀들은 물질을 배우면서 그와 동시에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다. <해녀 노 젓는 소리>는 ‘뱃물질’ 하러 오갈 때 돛배의 노를 저으며 주로 부르는데, 간혹 ‘궂물질’ 하러 갈 때 헤엄치며 부르기도 한다. 서부경남지역에 정착한 제주출신 해녀들이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주도에 ‘궂물질’ 하러 갈 때 물질작업장까지 헤엄쳐 가며 배운 경우와, 다른 하나는 본토에 출가해서 ‘뱃물질’ 하러 오갈 때 돛배의 노를 저으며 배운 경우가 그것이다. 서부경남지역에 정착한 해녀들 중의 대다수는 제주에서 ‘궂물질’ 하러 갈 때보다 본토에서 ‘뱃물질’ 하러 오갈 때 <해녀 노 젓

16) 필자 채록,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2005. 2. 19. 김수녀, 여·73세.

는 소리>를 배웠다고 한다. 그러면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배우게 된 두 가지 동기를 구연현장과 관련시켜 현장론적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제주도에서 물질작업장까지 헤엄쳐 가서 하는 물질인 이른바 ‘굿물질’ 하리 갈 때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배우게 된 동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도에서는 본토에서와는 달리 주로 굿물질을 했다. 제주도에 제주본토에 딸린 부속섬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본토에서처럼 연안의 섬으로 뱃물질 가는 경우보다 연안의 어장으로 굿물질 가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하군 해녀들은 선배인 상군 해녀들과 함께 물질작업장까지 헤엄쳐 굿물질 하리 다니는데, 이때 선배 상군해녀들이 부르는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듣고 배우게 된 것이 그 동기가 된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굿물질 갈 때, 물질작업장까지 어떻게 헤엄을 쳤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불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굿물질’하리 갈 때는 물질작업장까지 한 줄로 줄지어 헤엄쳤는데, 두 팔로 테왁<sup>17)</sup>을 가슴에 안고, 두 다리로 바닷물을 차며 헤엄친다. 줄의 앞부분에는 물질 기량이 뛰어난 이른바 상군 해녀가, 중간부분에는 물질 기량이 미숙한 이른바 하군 혹은 똥군 해녀가, 끝부분에는 상군 혹은 중군 해녀가 헤엄친다. 이때 맨 앞에서 테왁을 안고 헤엄치는 상군 해녀는 물질작업장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 뒤를 따르는 해녀는 앞에서 헤엄치는 해녀의 엉덩이 부분에 테왁을 붙이고 헤엄친다. 이렇게 한 줄로 줄지어 헤엄치며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부르는데, 맨 앞에서 헤엄치는 상군 해녀가 앞소리를 메기면 중간과 끝부분에서 헤엄치는 해녀들은 뒷소리를 받는다. 가창 방식은 주로 되받아 부르기(同一先後唱)나 메기고받아 부르기(先後唱)의 방식으로 부르고, 간혹 주고받아 부르기(交換唱) 방식으로도 가창한다.

17)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濟州方言研究會, 《濟州語辭典》, 濟州道, 1995, p. 566). 두령박이라고도 하는데, 현재는 모두 발포스티렌수지인 스티로폼(styrofoam)이 그 재료다.

이처럼 제주도에서 꺾물질 나갈 때 헤엄치며 <해녀 노 젓는 소리> 배운 게 전부인 해녀들은 뱃물질 나갈 때 노를 저으며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운 해녀들보다 가창할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해변에서 연안의 물질작업장까지 헤엄쳐 나가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해녀 노 젓는 소리> 구연 시간이 짧고, 구연 현장인 바다가 물결이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들이 단편적인 내용의 사설을 가창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가 2005년 1월 11일 채록한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거주하는 김생순(여·54,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출생)·고한백(여·59,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출생)·김순열(여·60,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하도리 출생)과 2005년 2월 18일에 채록한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에 정착한 강영희(59세,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출생)는 헤엄쳐서 꺾물질 나갈 때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웠다고 한다. 이들의 제보에 의하면 고향인 북제주군 우도면과 구좌면 하도리,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에서는 뚝배를 타고 물질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헤엄쳐서 꺾물질을 나갔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가창기연은 드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구연한 사설의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필자는 1986년 7월 29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성산읍 온평리 학술조사 때 민요조사반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때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에 거주하는 제보자 양송백(여·81)에게 “꺾물질하러 갈 때 헤엄치며 부르는 노래는 없나?”고 묻자, 양송백은 <해녀 노 젓는 소리> [1]을 불러주었다.

## [1]

|         |       |
|---------|-------|
| 이여사나    | 이여사나  |
| 물이남저    | 어서히라  |
| 이여도사나   |       |
| 물이간다    | 싼물이간다 |
| 동바당테레간다 | 이여도사나 |
| 든물나긴    | 서바당타게 |

|       |                     |
|-------|---------------------|
| 이여도사나 | 쳐라쳐라                |
| 이여도사나 | 이여도사나               |
| 물이난다  | 쏟물나건                |
| 동바당타게 | 든물나건                |
| 서바당타고 | 이여도사나               |
| 저어라   | 이여사나                |
| 이여사나  | 이여사나 <sup>18)</sup> |

제보자에 의하면 테왁을 가슴에 안고 헤엄칠 때도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부르는데, 뱃물질 오갈 때처럼 자주 부르지는 않는다고 한다. 헤엄치며 부르는 <해녀 노 젓는 소리>는 물결이 치는 상황에서 노래하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뿔 수 없고, 또한 헤엄치는 동작에 맞추어 구연하기 때문에 뱃물질 나갈 때 부르는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비하여 비교적 가락의 템포가 빠르다. 그리고 이러한 구연상황 하에서 혼자만이 구연하기 때문에 사설이 가다듬어지지 않고 구연 빈도 또한 드물다.<sup>19)</sup>

[1]은 “물이남져 / 어서히라(물이 난다 어서 헤엄쳐라)”라고 지시적 사설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조류를 이용하여 물질작업장으로 헤엄쳐 갈 때의 상황을 드러낸다. “쏟물이간다 / 동바당테레간다(쏟물이 간다 동쪽 바다로 간다)”고 조류의 흐름을 노래한 다음에 “쏟물나건 / 동바당타게 // 든물나건 / 서바당타고(쏟물이 가면 동쪽바다를 타고 밀물이 가면 서쪽바다를 타고)”라고 노래했다. 이는 갯물질을 나갈 때 물질작업장까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헤엄쳐 가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돛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뱃물질 나갈 때도 조류를 이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돛배의櫓를 젓거나 헤엄쳐서 물질작업장으로 갈 때 潮流를 거슬러 가기란 무척 어렵고 힘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潮流를 이용하여 돛배를 저어가거나 헤엄쳐서 물질작업장으로 간다면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힘이 덜 든다. 濟州島 근해의 潮汐干滿의 차는 다도해 방면의 높고 낮음과 큰 차가 없고 겨우 1m내외로 漲潮[밀물]는 서쪽으로, 落潮[쏟물]는 동쪽

18) 이성훈, <민요 제보자의 생애와 사설>, 《白鹿語文》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pp. 327-328.

19) 이성훈, 앞의 글, p. 328.

을 향하여 흘러간다.<sup>20)</sup> 다시 말해서 남해에서는 밀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썰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조류가 흐르는 현상을 이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부산에서 밀물초에 출발하면 제주, 서거차도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순조를 타고 경쾌하게 항해할 수 있으며 그만큼 항정 단축은 물론 유류 절약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이처럼 조류를 이용하여 물질작업장까지 헤엄쳐 가거나 돛배의 노를 저어가는 것은 물질 경험이나 해상생활 경험이 많은 해녀나 사공들이 바다 생활의 체험을 통해 터득한 해양지식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토에서 물질작업장까지 돛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서 하는 물질인 이른바 ‘벧물질’ 하러 갈 때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우게 된 동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토에서는 제주도에서와는 달리 주로 벧물질을 했다. 서부경남지역에는 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서처럼 연안의 어장으로 ㄹ물질 가는 경우보다 연안에 산재한 섬으로 벧물질 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만큼 ㄹ물질 나갈 때보다 가창기연인 노 젓는 시간이 길었다. 따라서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하군 해녀들은 선배인 상군 해녀들과 함께 물질작업장까지 돛배를 타고 노를 저어 벧물질 하러 다니는데, 이때 선배 상군해녀들이 부르는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듣고 배우게 된 것이 그 동기가 된다.

그러면 본토에서 해녀들이 벧물질 갈 때, 물질작업장까지 어떻게 노를 저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불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돛배를 타고 벧물질 나갈 때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가창 방식은 반드시 짹소리로 한다. 짹소리로 가장하게 된 근거를 돛배의 구조와 구연 현장의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sup>22)</sup> 예전에 해녀들이 벧물질 나갈 때 탔던 돛배의 檣은 대부분 3개나 5개이다. 檣이 3개인 경우는 ‘하노(하네)<sup>23)</sup>’가 1개이고 ‘젓걸이노(젓걸이네)<sup>24)</sup>’가 좌현과 우현에 각각 1개

20) 泉靖一, 洪性穆 譯, 《濟州島》, 濟州市愚堂圖書館, 1999, p. 81.

21) 朴淸正, 《물때》개정증보판, 일중사, 1998, p. 128.

22) 돛배를 타고 벧물질 나갈 때 <해녀 노 젓는 소리>를 짹소리로 가장한 이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성훈, <<해녀 노 젓는 노래>의 가장방식>, 《溫知論叢》第9輯, 溫知學會, 2003, pp. 40-42를 참고할 것.

23) ‘하노(하네)’는 돛배의 뒤쪽 가장자리인 고물에서 젓는 노이다. ‘젓걸이노’보

씩 있다. 또한 노가 5개인 경우는 ‘하노’가 1개이고 ‘젓걸이노’가 좌현과 우현에 각각 2개씩 있다. 이 중에 船尾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젓는 橈인 ‘하노’는 남자 뱃사공이 젓고, 배의 양쪽 옆에 나온 부분인 뱃파락에서 젓는 橈인 ‘젓걸이노’는 해녀들이 젓는다. ‘하노’는 ‘젓걸이노’보다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배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키[舵] 역할을 하고, ‘젓걸이노’는 배가 나아가는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sup>25)</sup> 그러므로 좌현과 우현에서 젓걸이노를 젓는 해녀들이 노를 같이 밀고 같이 당기면서 노 젓는 동작이 일치될 때 돛배가 한 방향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고, 또한 船尾에서 하노를 젓는 뱃사공도 돛배가 나아갈 방향을 수월하게 바꿀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구연 현장인 바다가 잔잔하거나 안전한 해역을 지날 때는 좌현에서 젓걸이노를 젓는 해녀들과 우현에서 젓걸이노를 젓는 해녀들이 짝을 나누어 짝소리로 <해녀 노 젓는 소리>를 가창한다. 반면에 파도가 높거나 조류가 빠른 목[海峡]처럼 위험한 해역을 지날 때는 船尾 오른쪽 가장자리에 하노를 젓는 남자 뱃사공과 좌·우현에서 젓걸이노를 젓는 해녀들이 짝을 나누어 짝소리로 <해녀 노 젓는 소리>를 가창한다.<sup>26)</sup>

## [2]

|         |                    |
|---------|--------------------|
| 치를잡은 으으 | 선주야사공 으으           |
| 뱃머리만 어어 | 발루와나주소 으으          |
| 젓거리로 으으 | 젓어간다 어허            |
| 흐당말민 에에 | 놈이나웃나 아하           |
| 흔믈만더 에에 | 젓어나가게 에에           |
| 이여도싸    | 쳐라쳐 <sup>27)</sup> |

- 다 크고 무거우며 돛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키[舵]의 역할을 한다.
- 24) ‘젓걸이노(젓걸이네)’는 돛배의 좌현과 우현에 옆으로 나온 부분인 뱃파락에서 젓는 노이다. 돛배가 나아가는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구실을 한다.
- 25) 이성훈, <<해녀 노 젓는 노래>의 사실과 현장성>, 《溫知論叢》 제8집, 溫知學會, 2002, p. 203.
- 26) 이성훈, <<해녀 노 젓는 노래>의 가창방식>, 《溫知論叢》第9輯, 溫知學會, 2003, pp. 40-41.
- 27) 金榮墩,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民俗苑), 1993, pp. 221-222.

[2]는 돛배의 방향을 잡는 것은 사공이고, 배의 속도를 내는 것은 해녀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노를 젓는 사공과 젓걸이노를 젓는 해녀들의 역할을 지시적 사실로 노래하고 있다.

서부경남지역과 같이 다도해 지역에서는 물질작업장까지 무동력선인 돛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물질인 ‘뱃물질’을 주로 했다. 특히 사천시 서금동 삼천포항 일대와 거제시 장목면·남부면·장승포동 일대가 그렇다. 다만 통영시의 경우는 예전부터 동력선을 이용한 뱃물질을 갔다. 통영시 미수동의 경우 일찍부터 동력선을 이용한 것은 통영시 미수동에서 출발하여 인근 연안의 섬으로 뱃물질을 나간 게 아니고, 통영시 연안에 산재한 한산도·사랑도·육지도·매물도 등지에 거주하며 뱃물질보다는 주로 꺾물질을 다니다가 거주 환경이 나은 통영시 미수동 지역으로 이주해서 뱃물질을 다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영시 미수동에 거주하는 현중순·현영자의 제보에 의하면 통영시 미수동에서는 예전부터 동력선을 이용해서 뱃물질을 다녔다고 한다. 제보자 현중순(여·63세, 제주도 우도면 출생)의 경우는 울산에서 돛배를 이용해 약 1년간 뱃물질 나간 게 전부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중순이 구연한 사실을 의미단락별로 나누었을 때 각편의 수가 무려 103편이었다.<sup>28)</sup> 이처럼 현중순이 구연한 사실의 내용이 풍부한 것은 제보자 현중순이 낙천적 성격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가창 능력이 뛰어난 점과 무관하지 않다.

### 3.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실의 변이양상

서부경남지역에 전승되는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실은 체언과 용언의 연결어미가 변이되는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후렴구도 변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이양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제보자의 생애력과 관련시켜 체언과 용언의 연결어미가 변이되는 양상을 살펴본 다음에

28) 현중순이 구연한 103편은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젓는 노래> 조사>, 《韓國民謠學》 第11輯, 韓國民謠學會, 2002, pp. 237-265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할 것.

후렴구가 변이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

|       |        |
|-------|--------|
| 이여도사나 | 이여도사나  |
| 우리 어멍 | 날 날 적에 |
| 해천영업  | 배올라꼬   |
| 날 낳던가 | 이여도사나  |
| 이여사나  | 이여도사나  |

|        |       |      |
|--------|-------|------|
| 이여사나   | 이여사나  |      |
| 요 물 아래 | 은과 금은 | 깔렸건만 |
| 노픈 낭게  | 열매로구나 |      |
| 이여도사나  |       |      |

|       |                      |
|-------|----------------------|
| 우리 엄마 | 날 날 적에               |
| 요 영업  | 시길라꼬                 |
| 날 낳던가 | 이여도사나 <sup>29)</sup> |

[4]

|                      |        |
|----------------------|--------|
| 이여도사나                | 이여도사나  |
| 이여도사나                |        |
| 요넬 첫영                | 어디로 가리 |
| 대천바당                 | 한가운데   |
| 가운데 들영               | 돌 진 돌밤 |
| 날 새여 간다              |        |
| 이여도사나                | 이여도사나  |
| 이여이여                 | 이여도사나  |
| 이여도사나 <sup>30)</sup> |        |

29) 팔자채록,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2005. 2. 19. 김갑연, 여 · 73세.

30) 팔자채록,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다포마을, 2005. 2. 19. 우삼덕, 여 · 83세.

[5]

|                      |        |
|----------------------|--------|
| 저 바다엔                | 물이 썰어서 |
| 올라갈라꼬 허믄             | 힘들겠다   |
| 이여차                  | 우리배는   |
| 잘도 간다                | 이여도사나  |
| 이여도사나                | 저어라저라  |
| 잘도 간다 <sup>31)</sup> |        |

[6]

|        |       |
|--------|-------|
| 우리 부모  | 나를 놓아 |
| 가시나 나무 | 몽고지에  |
| 손에 켈이  | 지올라고  |
| 나를 놓아  | 길랐던가  |
| 이여도사나  |       |

|       |        |
|-------|--------|
| 술가야   | 담배는    |
| 내 심중을 | 알건마는   |
| 한품에   | 든 임은   |
| 내 심중을 | 몰라나 주네 |
| 이여사나  | 이여싸    |
| 이여사나  | 이여싸    |
| 바람은   | 불수록    |
| 찬질만   | 나고요    |
| 임은    | 불수록    |
| 깊은 정만 | 드는구나   |
| 이여사나  |        |
| 이여도   | 사니야    |
| 이여도   | 사니야    |
| 이여사나  | 이여사나   |

|       |       |
|-------|-------|
| 꼴아 꼴아 | 곱은 꼴아 |
| 필 작에는 | 곱기 피고 |

31) 필자채록, 경남 사천시 동금동, 2005. 1. 10. 윤계옥, 여·77세.

|        |       |                      |
|--------|-------|----------------------|
| 질 작에는  | 석계 진다 |                      |
| 오동통    | 저 발동기 |                      |
| 서양 기계도 | 돌아가는데 |                      |
| 우리 배는  | 주먹치기  | 배로구나                 |
| 정든 남   | 줄라고   |                      |
| 술 받아   | 이고요   |                      |
| 고개 장난  | 치다가   | 쏟아 뺐네                |
| 고개 장난  | 치다가   | 쏟은 술은                |
| 보리면물   | 갈애도   | 맛만 좋네 <sup>32)</sup> |

[3]의 제보자 김갑연은 1934년 경남 삼천포 앞바다에 있는 신도에서 출생했다. 김갑연의 부모님의 고향은 삼천포인데, 김갑연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8살이 되던 해에, 삼천포로 출가물질을 왔던 제주도 출신 해녀를 따라 제주도 우도면 연평리로 이주했다고 한다. 김갑연은 우도에서 생활하다가 16살 때부터 물질을 배웠고, 23살에 초용으로 부산으로 출가물질을 왔다. 그 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해금강)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김갑연은 남부면 갈곶리에서 돛배를 타고 노를 저어 남부면 다대리까지 가서 물질을 했는데, <해녀 노 젓는 소리>는 이때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부르는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듣고 배웠다고 했다. 김갑연은 제주도 우도면에서 청춘시절을 다 보낸거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김갑연은 꺾물질 하러 갈 때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운 게 아니고, 뱃물질 하러 오갈 때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녀가 부르는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사실 내용은 제주도 출신 해녀들 못지않게 내용이 웅골차다.

[4]의 제보자 우삼덕은 경남 통영시 욕지도 출생했다. 9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부모님의 고향인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으로 가서 살았는데, 물질은 12살 때부터 배웠다고 한다. 23살에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다포마을로 이주해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해녀 노 젓는 소리>는 다포마을에서 병대도, 속칭 열두손대로 돛배를 타고 노 저으며 뱃물질

32) 필자채록,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2004. 11. 13. 윤미자, 여·71세.

다닐 때 배웠다고 한다. 현재는 몸이 아파서 물질을 그만 두었지만, 82세까지 물질했다고 한다. 노를 저어 뱃물질 나간 것은 1966년도까지였다고 하며, 그 당시 다포마을, 속칭 작은다대에는 뚝배가 3척 있었다고 한다.

[3]의 제보자인 김갑연과 [4]의 제보자인 우삼덕은 출생한 지역과 제주도로 이주하게 된 동기 및 물질 배운 지역이 같을 뿐만 아니라, 경남으로 이주한 시기 또한 유사하다. 서부경남지역에서 출생했고, 부모님 사후에 제주도 우도면으로 이주했으며, 제주도 우도에서 물질을 배웠고, 23살에 본토로 출가물질을 나와 서부경남지역에 정착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다만 우삼덕의 부모는 제주도가 고향이고 김갑연의 부모는 경상남도가 고향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우삼덕은 제주도가 고향인 부모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제주방언을 익힐 수 있었다. 그 결과 우삼덕은 제주방언에 남아있는 ‘·’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김갑연은 경남 삼천포(현재 사천시)가 고향인 부모에게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제주도에서 생활한 것은 약 15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갑연은 제주도방언에 사용되는 어휘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익힐 수는 있었지만, 발음까지 정확하게 익혔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김갑연이 제주방언에 남아있는 ‘·’를 ‘ㅏ’로 발음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우삼덕은 제주방언으로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불렀지만, 김갑연은 제주방언과 경상남도방언을 섞어서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불렀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김갑연이 구연한 사설과 우삼덕이 구연한 사설이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방언의 특징 중의 하나인 ‘·’ 음은 제주도 출신 고령층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우삼덕은 ‘·’의 발음을 정확히 한 반면에 김갑연은 ‘ㅏ’로 발음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申斗憲이 “제주도민요의 내용상 특질의 하나로 제주도방언 그대로의 표현이다”<sup>33)</sup>라고 지적한 바 있듯이 제주도 출신해녀들이 본토에 이주하여 정착했다고 하더라도 <해녀 노 짓는 소리>는 제주방언으로 부른다.

33) 申斗憲, <濟州島民謠의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61, p. 81.

[3]의 제보자 김갑연이 구연한 “요 물 아래 / 은과 금은 / 깔렸건만”이라는 사설에서 “깔렸건만”은 현재 ‘깔렸건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제주도 출신 해녀들 중에 고령층은 현재까지도 제주방언 ‘·’의 음가를 살려 ‘꺄렸건만’의 형태로 발음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3]의 제보자는 ‘·’음을 살려 ‘꺄렸건만’으로 발음하지 않고 “깔렸건만”으로 노래했다. 이에 반해서 [4]의 제보자는 ‘·’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여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불렀다. 즉 “대천바당 / 한가운데 // 가운데 들엉 / 돌 진 돌밤 // 날 새여 간다”라는 사설에서 “돌 진 돌밤”을 ‘달진 달밤’이라고 가창하질 않고 ‘·’의 음가를 살려 “돌 진 돌밤”으로 발음했다. 현우중은 제주도 방언 ‘·’음의 음가를 개구도, 최고점, 음향분석을 통하여 [ɔ]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 것<sup>34</sup>)처럼 ‘·’의 음가는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운 음이다. 한 개인이 구사하는 언어의 발음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고 본다면, 우삼덕은 ‘·’음을 ‘·’로 발음한 것과는 달리 김갑연은 ‘·’음을 ‘ㅏ’로 발음한 것은 두 제보자가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시절에 놓여 있던 언어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우삼덕은 어린 시절부터 제주방언을 구사하는 부모 슬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주방언의 발음에 친숙할 수 있는 언어적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김갑연은 경상방언을 구사하는 부모 슬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주방언의 발음에 친숙할 수 있는 언어적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3]의 사설에는 제주방언과 경상방언의 체언과 용언의 어미 형태가 쓰이고 있다. 제주방언 어휘가 사용된 것은 “우리 어멍 / 날 날 적에”, “노픈 낭게 / 열매로구나”의 “어멍”, “노픈 낭게”이다. 경상남도방언 어휘가 사용된 것은 “해천영업 / 배올라꼬”, “요 영업 / 시길라꼬”의 “배올라꼬”, “시길라꼬”와 “우리 엄마 / 날 날 적에 // 요 영업 / 시길라꼬”의 “엄마”이다. [4]의 사설에는 제주방언의 체언과 용언의 어미 형태가 쓰이고 있다. “가운데 들엉 / 돌 진 돌밤”의 “돌”과 “요넬 짓엉 / 어디로 가리”의 “-엉”이 그것이다.

34) 현우중, <제주도 방언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耽羅文化》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p. 55.

먼저 제주방언 어휘가 사용된 것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어머니’의 제주방언은 “어멍”이다. ‘높다’의 제주방언은 ‘노프다’이다.<sup>35)</sup> 표준어 ‘높은’을 제주방언 표기법으로 표기하면 “노픈”이 된다. 제주방언에서는 ‘나무’는 고려시대의 어형이라 할 수 있는 ‘남’形 이 아직도 쓰여지고 있고 또 조선시대의 語形 ‘나모’도 흔히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낭’語形인데, 이 어형은 ‘남’과 ‘나모’의 중간 시대에 사용된 어형이다.<sup>36)</sup> 그러므로 “낭계”는 ‘나무에’라는 의미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달[月]’의 제주방언은 “똥”이다. 종속적 연결어미 ‘-어서’의 제주방언은 “-엉”이다. 이처럼 [3]의 제보자가 제주방언 어휘를 사용한 것은 제보자의 부모가 경상남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8살부터 23살까지 제주도 우도면에 살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4]의 제보자가 제주방언에 쓰이는 용언의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의 ‘·’음을 정확히 발음한 것은 부모가 제주도 출신이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으로 경상남도방언을 사용한 것은 용언의 연결어미와 체언이다. 용언의 연결어미를 사용한 것은 “배올라꼬”, “시길라꼬”의 “-라꼬”이다. 경상남도방언에서 쓰이는 연결어미 ‘-라꼬’는 제주방언에서 ‘-르라고’, ‘-르려고’의 형태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제주방언에서 ‘-르라고’나 ‘-르려고’는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장차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sup>37)</sup> ‘배우려고’와 ‘시키려고’는 제주방언에서 ‘배올라고’, ‘배올려고’와 ‘시길라고’, ‘시길려고’, ‘시킬려고’의 형태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3]의 제보자는 경상남도방언의 연결어미“-라꼬”<sup>38)</sup>를 사용하여 “배올라꼬”, “시길라꼬”로 노래했다. 이는 [5]의 제보자 윤계옥이 “올라갈라꼬”로 가창한 것도 마찬가지다. 체언을 사용한 것은 “엄마”이다. ‘어머니’는 제주방언에서는 ‘어멍’이라 하고,<sup>39)</sup> 경상남도방

35) 濟州方言研究會, 《濟州語辭典》, 濟州道, 1995, p. 103.

36)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論攷篇, 二友出版社, 1985, pp. 450-451.

37) 濟州方言研究會, 앞의 책, p. 166.

38) 語文研究室, 《韓國方言資料集Ⅶ》(慶尙南道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p. 305.

39) 濟州方言研究會, 앞의 책, p. 389.

언에서는 ‘엄마·옴마·오매’라고 한다.<sup>40)</sup> [3]의 제보자는 ‘어멍’과 ‘엄마’를 혼용하고 있다. “우리 어멍 / 날 날 적에 // 해천영업 / 배올라꼬”와 “우리 엄마 / 날 날 적에 // 요 영업 / 시길라꼬”의 “어멍”과 “엄마”가 그것이다.

[3]의 제보자 김갑연은 제주방언 어휘인 “어멍”, “노픈 낭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방언 어휘인 “배올라꼬”, “시길라꼬”, “엄마”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해녀 노 젓는 소리>가 서부경남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어떤 양상으로 변이가 이루어지고 전승되는지를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의 제보자 김갑연은 제주도 우도면에서 물질을 배우며 제주방언을 익혔고,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에서 다대리로 뱃물질 갈 때 제주도 출신 해녀들로부터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듣고 배웠다. 하지만 김갑연은 태어난 곳이 경남 삼천포 신도이고, 정착한 곳은 거제시 남부면이다. 2005년 현재 73세인 김갑연의 생애 가운데 제주도에 살았던 기간은 고작해야 15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3]의 사설을 통해서 제주도 <해녀 노 젓는 소리>가 서부경남지역으로 전파되어 전승되는 동안 체언과 용언의 어미에서 변이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설의 어휘 중에 ‘어머니’를 지칭하는 제주방언 ‘어멍’과 경상남도방언 ‘엄마’를 혼용하고 있고, 제주방언의 연결어미 ‘-르랴고’·‘-르려고’를 경상남도방언의 ‘-라꼬’로 변이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제주도 <해녀 노 젓는 소리>가 서부경남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제주방언이 경상남도방언으로 변이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6]의 제보자인 윤미자는 1934년 제주도 우도면에서 출생하여 6살에 어머니와 함께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로 이주해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윤미자의 출생지는 제주도이지만, 사실상 고향은 거제도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6]의 제보자인 윤미자는 [3]의 제보자인 김갑연과 마찬가지로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체언과 용언까지도 경상남도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나를 놓아, 술가야, 끝아 끝아”, “필 작에는”, “쏟아 뻗네”, “보리뎌물” 등이 그것이다. 出産하다의 의미인 이른바 ‘낳다’를 활용하면 제주방언에서는 표준어와 같이 “낳아”라고 발음하는데, 제

40) 語文研究室, 앞의 책, p. 128.

보자는 경상방언인 “농아”로 발음했다. 또한 제보자는 ‘술[酒]과야’를 “술가야”로 발음한 것은 거제시의 경우 ‘-과야’를 ‘-가야’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꽃’의 제주방언은 ‘꽃’인데, 제보자는 ‘꽃’의 경남 거제시 방언인 “꼇”<sup>41)</sup>으로 발음했다. ‘버리다’의 경상남도 방언은 고성·남해의 경우는 ‘뻐다[p'i : t'a]’나 사천의 경우는 ‘뻐뤼다[p'iri't'a]’가 쓰인다.<sup>42)</sup> “쏟아 뻐네”를 제주방언으로 발음하면 “쏟아 버렸져”, “쏟아 부렸져”이다. 보리쌀을 씻어 낸 뿌연 물인 ‘보리뜨물’을 제주방언으로는 ‘보리뜯물’이라고 하는데 경상방언인 “보리띣물”로 발음했다. 따라서 [6]의 제보자인 윤미자가 [3]의 제보자인 김갑연보다 경상방언의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은 어린 시절인 6살에 제주도에서 경상남도 거제시로 이주하여 정착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끝으로 후렴구가 변이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해녀 노 젓는 소리>의 후렴구인 ‘이여도사나’나 ‘이여사나’는 악곡 구조로 볼 때 한 마디에서 가창되는 게 일반적이다. [6]의 제보자 윤미자는 후렴구 “이여사나”, “이여도사나”를 한 마디로 부르다가 “이여도사나”를 두 마디로 나누어 “이여도 / 사니야”라고 가창했다. 이는 <해녀 노 젓는 소리>의 후렴구 ‘이여도사나’까지도 “이여도사니야”로 변이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6]의 제보자에 한정된 사례로 <해녀 노 젓는 소리>가 서부경남지역으로 전파되면서 후렴구까지도 변이양상을 보인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수집된 <해녀 노 젓는 소리> 자료와는 다르게 서부경남지역에서는 후렴구도 변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주목할만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의 제보자처럼 비록 출생지는 제주도일 지라도 경상남도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거나, [3]의 제보자처럼 경상남도에서 출생하고 잠시 제주도에서 생활했을지라도 부모의 고향이 경상남도인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경상남도방언을 익히게 되는 언어적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을 경상남도 방언으로 구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제주도 민요인 <해녀 노 젓는 소리>

41) 語文研究室, 앞의 책, p. 181.

42) 語文研究室, 앞의 책, p. 307.

가 서부경남지역에 전파되어 전승되는 동안 사설의 체언과 용언의 연결 어미가 경상방언으로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후렴구인 ‘이여도사나’를 두 마디로 나누어 가창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여도 / 사니야’로 변이될 수 있음을 알았다.

#### 4. 〈해녀 노 짓는 소리〉 창자의 특성과 사설의 특징

〈해녀 노 짓는 소리〉 전승과정에서 개별 창자의 특성이 사설의 변이를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하면, 창자의 특성은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의 창작 능력 및 가창 능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자는 사설의 창작 능력과 가창 능력에 따라 적극적 창자와 소극적 창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창자는 노래 부르기를 즐기고 우수한 기억력과 재능을 지녔기에, 전승을 충실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자기대로의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소극적 창자는 이와는 달리 노래 부르는 자리에 참석하기는 하나 듣는데 열중하는 편이고, 재능이 적어서 전승을 잘 보존하지 못하며 창작력도 빈약한 사람이다.<sup>43)</sup> 따라서 적극적 창자는 사설 창작 능력과 가창 능력이 뛰어난 반면에, 소극적 창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본장에서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현종순과 거제시에 거주하는 윤미자를 중심으로 〈해녀 노 짓는 소리〉 창자의 특성과 사설의 특징을 제보자의 사설 창작 능력과 가창 능력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4.1 현종순의 경우

필자는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에 정착한 제주출신 해녀인 현종순으로부터 〈해녀 노 짓는 소리〉를 채록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1차 현지조사는 2001년 12월 20일~21일까지 이틀간 조사했

43) 趙東一, 앞의 책, p. 133.

고, 2차 현지조사는 2002년 8월 18일에 조사했다. 2차 현지조사를 갔을 때, 현종순은 그동안 잊었던 사설의 기억을 되살리고, 옛날에 불렀던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설을 메모지에 기록한 것을 보여주었다. 1차 현지조사와 2차 현지조사를 갔을 때 현종순이 구연한 사설을 의미단락으로 나눈 각편 수는 103편이다.<sup>44)</sup> 현지조사 갔을 때 현종순과 대담한 내용 중에 일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조사자) 물질을 배울 때는 그 누구한테 지도를 받았습니까?

(제보자) 지도하나마나 외할망과 살명 동네사람들과 같이 가서 여름되면 해수욕도하고 그냥 배운거지 누가 가르치고 말고 그런 거 없어.

(조사자) 주로 하는 거는?

(제보자) 주로 하는 거는 미역, 우미, 천초. 창해 갖고 고기 썰러 덩기고. 12살에 물질배우기 시작하니, 16살 때 잘하니 객지로 가기 시작한거지 육지로.

(조사자) 처음 12살에 배우고 16살부터 육지로 가고, 노래는 16살 때?

(제보자) 노 짓는 노래 배운 것이 열여섯 살에. 울산서 육지서 가기 시작해서 잠탕가 부르다가 해녀노래 막 부른기라.

(조사자) 몇 살까지 그 노래를 배웠나? 그 노래를 실제로 노 저으면서 배운 거는?

(제보자) 열여섯 살에 배운거라.

(조사자) 언제까지?

(제보자) 일년 정도.

(조사자) 그 후에는 배 안 짓고?

(제보자) 안 저었어. 울산 간 뒤에. 동력선 타느라고. 열여섯 살에 가네 어명도 없지, 그냥 혼자 외로우니깐, 노만 지면 막 노래가 나오는 거야. 막 수십가가 나와. 가사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자기 속으로 '한탄가'다 이거야.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종순은 12살에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에서 물질을 배웠다. 16살에 초용<sup>45)</sup>으로 경북 울산으로 출가물질

44)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짓는 노래> 조사>, 《韓國民謠學》 第11輯, 韓國民謠學會, 2002, pp. 235-265.

45) 제주 해녀가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바깥(육지)으로 出稼해서 물질 작업을 하면서 지내는 일.

을 나갔다. 그녀는 울산에서 뚝배를 타고 노를 저어 뱃물질 나갈 때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웠다고 한다. 이처럼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가창기연은 노 젓는 노동이다. 경북 울산에서 노를 저으며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불렀던 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창자와는 다르게 그녀가 구연한 사설을 의미단락으로 나눈 사설의 각편 수는 103편에 이른다. 이는 현종순의 가창 능력이 뛰어난 점도 있지만, 구연한 사설은 해녀의 물질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설은 드물고 자탄가 성격의 사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종순은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사설은 고정돼 있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십가, 한탄가의 성격을 띤다고 했다.

현종순은 16살에 경북 울산으로 초용을 가서 1년간 뚝배의 노를 저으며 뱃물질 오갈 때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웠을 뿐이다. 그 후로는 뚝배의 뺨를 저어 뱃물질 나가본 적이 없다. 현재까지 동력선을 타고 뱃물질을 다닌다. 이러한 현종순이 현재까지 많은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사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생애력과 무관하지 않다. 마치 [9]과 같은 삶의 연속이었고, 그러한 삶이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삶의 한을 노래한 서정적 사설을 풍부하게 가창할 수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현종순은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적극적이며 활달한 성격을 소유한 적극적 창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본다.

## [7]

|       |                     |
|-------|---------------------|
| 이여사나  | 이여도사나               |
| 저 바다엔 | 은과야 금은              |
| 철대같이  | 갈렸으나                |
| 높은 낭에 | 열매로다                |
| 낮은 낭에 | 까시로구나               |
| 이여도사나 | 이여사나 <sup>46)</sup> |

## [8]

|          |         |
|----------|---------|
| 이여도싸나 아아 | 이여싸나 아아 |
|----------|---------|

46) 이성훈, 앞의 글, p. 262.

|          |                     |      |
|----------|---------------------|------|
| 저라쳐라     |                     |      |
| 이 바당에    | 은과 금은               |      |
| 깔렸건마는    | 어기야차                |      |
| 저라쳐라     |                     |      |
| 이여도싸나 아아 | 저 바당에               |      |
| 이 바당에    | 은과 금은               |      |
| 깔렸건마는    | 이여싸나                |      |
| 높은 낭개    | 열매로구나               |      |
| 이여싸나     | 쳐라쳐라                |      |
| <br>     |                     |      |
| 이여도싸나 아아 | 이여싸나 아아             |      |
| 저 바당에    | 은과 금은               | 깔렸건차 |
| 이여차      | 쳐라쳐라                |      |
| 높은 낭개    | 열매로구나               |      |
| 이여싸나     | 이여싸나 <sup>47)</sup> |      |

[9]

|        |                      |
|--------|----------------------|
| 일본 동경이 | 얼마나 좋아               |
| 꽃 같은   | 나를 두고                |
| 연락선을   | 탄더냐                  |
| 저라져라   | 어기야져라                |
| 이여사나   | 이여도사나 <sup>48)</sup> |

[10]

|         |                     |
|---------|---------------------|
| 이여싸나 아아 | 이여도사나 아아            |
| 일본 동경이  | 얼마나 좋아              |
| 꽃 같은    | 나를 두고               |
| 연락선을    | 타고                  |
| 이여싸나    | 이여싸나 <sup>49)</sup> |

47) 필자 채록,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2005. 1. 15. 고순금, 여·84세.

48) 이성훈, 앞의 글, pp. 243-244.

49) 필자 채록,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2005. 1. 15. 고순금, 여·84세.

[7]은 “저 바다엔 / 은과야 금은 // 철대같이 / 깔렸으나 // 높은 낭에 / 열매로다 // 낮은 낭에 / 까시로구나”(저 바다에는 은과 금이 철대같이 깔려있으나 높은 나무에 열매로구나 낮은 나무에 까시로구나)라고 하여, 바다 속에는 수많은 해산물이 널려 있는데도 물질 기량이 모자라 채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노래했다. 여기서 ‘은과 금’은 미역이나 우뚝가사리보다는 소라나 전복을 상징한다고 본다. 전복은 조류가 드나드는 해안 및 수심 20~30m 정도에 있는 암초나 여울목 속의 돌 밑에 숨어 서식하기 때문에 미역이나 우뚝가사리를 채취하는 것보다 소라나 전복을 채취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이렇다.

해녀들이 물질 작업은 크게 미역·우뚝가사리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러 가는 경우와 소라·전복 등의 복족류(腹足類, *Gastropoda*)를 채취하러 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해조류는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어장에서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보장되지만, 복족류는 그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헛될 수도 있다.<sup>50)</sup> 필자가 강원도 속초시에 정착한 제주 출신 해녀 이기순으로부터 채록한 바에 의하면, 1940년대만 하더라도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의 경우에 해녀들이 미역 채취하러 갈 때는 경찰에서 나와 뚝배들을 일렬로 정렬시킨 후에 총을 쏘아서 작업 출발 신호를 알렸다고 한다.<sup>51)</sup> 이처럼 해조류는 암반에 붙어 서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식지가 정해져 있고, 해조류 채취 작업장은 비교적 수심이 얇은 곳이다. 하지만 복족류는 먹이감인 감태가 많은 곳의

50) 해녀들이 막연히 소라·전복 등을 캐는 작업을 해녀 사회에서는 ‘헛물에 들다’라고 한다.

51) 제보자, 이기순(李基順, 女, 1922년 4월 11일),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001년 12월 23일 필자 채록. 제보자는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에서 출생하여 27살에 초용으로 부산에 출가 물질을 나왔다. “우리 고향은 이제 그 때 시절에도 순경이 잇더라고. 널 메역 조문헌다 허문 오닐 큰축항에, 또 저 동축항 서축항에서 줄을 메여, 줄을 메여가꼬, 이제 배가 다 거기 모여실 꺼아나. 모여시며는 총을 팡 허며는 서로 앞의 갈라꼬 허다가 옷도 안 입고 물에 빠진 사름 잇고, 수경도 안 씌고 물에 빠진 사름 잇고 그렇게 해.”(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崇實語文》第19輯, 崇實語文學會, 2003, p. 484).

바위에 붙어 서식하며 서식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채취하는 게 어렵고, 복족류 채취 작업장은 해조류 채취 작업장보다 수심이 비교적 깊다. 전복은 미역을 채취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은 李益泰의 《知瀛錄》에도 기록된 바, “進上하는 말린 전복인 搥引鰓을 전복 잡는 잠녀는 90명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었는데, 늙고 병들어 거의가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미역을 캐는 잠녀는 800명에 이르는데, 물속에 헤엄쳐 들어가 깊은 데서 미역을 캐는 것은 전복 캐는 잠녀와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익숙하지 못하다고 핑계를 대어 위험한 것을 고루 피하려고만 한다. 이 잠녀들의 괴로움의 차이는 현격하게 다르다. 따라서 장래에 전복잡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을 걱정하고 또 均役을 시키고 전복잡이를 익히도록 권장하여 미역 캐는 잠녀에게 추인복을 나누어 정하였다.”<sup>52)</sup>고 하였다.

[7]은 현종순의 뛰어난 사설 창작 능력에 의해 사설의 내용이 확장된 구조를 보여준다. 기왕의 간행된 자료집에는 [8]와 같이 “높은 낭에 / 열매로다(높은 나무에 열매로구나)”로 각편의 의미단락이 끝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종순은 “높은 낭에 가시로구나 낮은 나무에 가시로구나”라고 대구 형식의 완결된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종순은 사설의 창작과 사설의 구조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현종순이 적극적 창작자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필자가 2005년 1월 15일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에서 채록한 고순금이 가창한 사설은 [8]과 [10] 총 3편이었는데, 중복된 의미단락을 제외하면 구연한 각편의 수는 2편에 지나지 않았다. [8]은 “저 바당에 / 은과금은 / 깔렸건마는 // 높은 낭계 / 열매로구나”라는 동일한 사설을 두 번 반복하여 부르고 있을 뿐 더 이상 사설을 확장하여 부르지 못했다. 다만 [10]의 사설 “일본 동경이 / 얼마나 좋아 // 꽃 같은 / 나를 두고 // 연락선을 / 탄더냐”만을 부를 뿐이었다. 따라서 고순금은 현종순이 구연한 103

52) 李益泰, 金益洙 譯, 《知瀛錄》, 濟州文化院, 1997, p. 85. 進上搥引鰓專責於採鰓潛女九十名而老病居多不能支堪. 採鰓潛女多至八百遊潛水中深入採鰓無異採鰓女. 而稱以不習抵死謀避均. 是潛女苦歇懸. 殊爲慮將來採鰓無人. 且欲均役而勸習採鰓分定搥引鰓於藪潛(李益泰, 《知瀛錄》, 增減十事. 肅宗22 [1696년])

편의 사설 중에 겨우 [7]과 [9]의 사설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재능이 적어서 전승을 잘 보존하지 못하며 창작력도 빈약한 소극적 창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7]~[10]은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이 전승되는 양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일본 동경이 / 얼마나 좋아”라는 사설 다음에는 “꽃 같은 / 나를 두고 // 연락선을 / 탄더냐”라는 사설로, “저 바닷에 / 은과 금은 / 깔렸건마는”라는 사설 다음에는 “높은 낭게 / 열매로구나”라는 사설로 이어지는 고정적 사설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의 전승은 2음보격의 첫 행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첫 행의 사설을 기억하고 있으면 둘째 행의 사설은 고정된 형태로 불러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설 내용이 전승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의 의미 단락은 한 행이 2음보격이고, 2행이 하나의 각편이 되는 구조가 기본 형식임이 드러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순금은 고정적 사설로 전승되는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설만을 부른 소극적 창자에 지나지 않고, 현종순은 고정적 사설로 전승되는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설에 새로운 사설 내용을 덧붙여서 대구 형식의 완결된 구조로 사설을 창작하여 가창할 수 있는 적극적 창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 4.2 윤미자의 경우

제주도 우도가 고향인 윤미자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살기가 어려워 여섯 살 때 어머니를 따라 지금의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대포마을로 이사 왔다”고 했다. 그녀는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열다섯 살에 물질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공과 함께 매물도, 가을도, 병대도(속칭 손대도), 육지도 등지를 목선에서 사공과 함께 목선을 타고 노를 저으며 물질을 다녔다. <해녀 노 짓는 소리>는 이때 배웠다고 한다. 대담 내용을 일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조사자) 예전에 그러면은 고향이 제주도 어디시파, 원래.

(제보자) 고향? 제주도 저 소섬.

(조사자) 소섬. 무슨 동?

(제보자) 거가 본대 우리 고향이라고 했는데, 어릴 작에 한 멧 살 때 데리고 나와나 논계로. 그랑계로 외갓집은 비양이고 우린 하동이고, 그때는 하동이 비양이라지 하동 하동.

(조사자) 거기서 태어나서 가지고 물질을 시작하신 게 몇 살 때부터?

(제보자) 인자 물질은 그때 어릴 작 여섯 살 때 옴마가 여기 데꼬 나와 가지고. 여로 바로 여 와가리. 물질은 그런데 그때만 해도 딱할 때가 됐는께, 다섯 살 묵어서 조금씩조금씩 배와가꼬 마.

(조사자) 그럼 학교는 이동네 탕기고?

(제보자) 학교는 저 명사 학교도 올케 못났써예. 우리 일본시대 땡길 작에 일본 사 학년 일 학기 땡길 때나 해방이 됐뻬고. 그때 딱 나 돼노니께 한글 이 거는 몰라써예

(조사자) 물질은 그때?

(제보자) 열다섯 살 묵어서 그땐 여기 마 어른이고 아고 마 전부 그때는 여 할 때가 대 논께. 원 돈은 안 벌어도 그마.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며 고만 조금씩 묵옥삼아 해수욕삼아 해가지고 배와가꼬. .... 육지사람들도 그 당시만 해도 많이 배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조사자) 그러면 육지사람들은 보통 몇 살 때부터 물질을 제주사람한테 배웠는지

(제보자) 그때도 그 우리하고 같이 우리 나이 된 사람들은 일추 그래가지고 하고, 또 우리 밑에 사람들은 또 마 우리보다도 나가 많이 묵어서 배우고 마 그래췌지.

(조사자) 주로 뭐를 잡았어요.

(제보자) 그때는 뭐 우무, 미역하고. 요샌 켄자 헛물이라 케가꼬 뭐. 전북 고동 뭐 했지만도. 그 당시에는 천초하고 미역하고 곤푸 그런거 하고 또 어데 그런거 하다가 또 합자, 돌합자.

(조사자) 헛무래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신고 마췌

(제보자) 헛물한 지 참 오래 됐으예.

(조사자) 도박, 천추하다가 헛물 시작한 거는 ...

(제보자) 지끔도 천추는 합니다. 미역도 가끔 지금 먹는 건 하고. 하지만은 도 헛물한 지는 한 20년 넘기 됐는가.

(조사자) 음. 20년.

(제보자) 네, 쯤 오래됐지예. 20년도 더 됐지예.

(조사자) 여기에서 그 물에 배타고 어느 동네로 나가 났습니까.

(제보자) 우리 여 배를 타면은 여 산 넘어를 가면은 저 가을. 그때는 우리가 그 사선타고 나가서 할 때는 그때는 아무 덜 가 가지고 해가꼬. 또 반절해올 때도 있꼬. 그냥 해 다 묵는 때도 있고. 그때는 별로 이 바당을 사고 팔고 그런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거정 때는요. 요 섬은 저 매물도로 가던가 가을도, 기미새, 여 딱섬, 저 손대도, 저 욱지꺼정 뭐뭐뭐 안 갔다운 데 없이 우리 다 갔다왔으예. 배로 타 가지고, 사선타 가지고 사선타, 나뭇배에 노 저가꼬. 노 저 가지고 남자 저 어른이. 밑네 젓는 남자 어른 하나.

(조사자) 밑네 하나.

(제보자) 젓고 그담에는 여자들 서이 너이씩 다 등을 맞춰가꼬 그래가꼬. 그땐 하더라케도 머 다 젊었실 때 대논께로 노래도 잘 하고 그 먼 데 가도 해가 지든 짜르든 아직 일찍 가면은 또 작업해가꼬 집에 들어오고 그때 당시는 이는 헛물에 그런 걸 안 하고 전부다 미역 그런 거 조금씩 해와가꼬 부치고 뭐. 그래가꼬.

[11]

|       |                     |
|-------|---------------------|
| 술가야   | 담배는                 |
| 내 심중을 | 알건마는                |
| 한푼에   | 든 입은                |
| 내 심중을 | 몰라나 주네              |
| 이여사나  | 이여싸                 |
| 이여사나  | 이여싸                 |
| 바람은   | 불수록                 |
| 찬질만   | 나고요                 |
| 입은    | 불수록                 |
| 깊은 정만 | 드는구나                |
| 이여사나  |                     |
| 이여도   | 사니야                 |
| 이여도   | 사니야                 |
| 이여사나  | 이여사나 <sup>53)</sup> |

53) 필자 채록,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2004. 11. 13. 윤미자, 여·71세.

[12]

|                    |        |
|--------------------|--------|
| 이어싸                | 이어도사나  |
| 저어라저라              | 이기야 저라 |
| 잘도 간다              | 우리나 배는 |
| 우리 배는              | 술나무 배가 |
| 소리술술               | 잘 넘어가고 |
| 느그나 배는             | 참나무 배가 |
| 차리찰찰               | 잘도 간다  |
| 이여사나               | 이여도사나  |
| 이여사 <sup>54)</sup> |        |

[13]

|       |                      |
|-------|----------------------|
| 우리 배는 | 잘도나간다                |
| 술술 가는 | 소나무베야                |
| 잘잘 가는 | 잣나무베야                |
| 어가농창  | 가는베야                 |
| 정심참도  | 늦어진다                 |
| 어서나가자 | 이여도사나 <sup>55)</sup> |

[14]

|        |        |
|--------|--------|
| 수덕 좋은  | 선왕님아   |
| 우리 배랑  | 가는 덜랑  |
| 베역 좋은  | 여 곳으로  |
| 우미 좋은  | 여 곳으로  |
| 가계나 험씨 | 이여사나   |
| 이여도사나  |        |
| 잘잘 가는  | 잣나무 베야 |
| 술술 가는  | 소나무 베야 |
| 우리나 배는 | 잘도 간다  |
| 이여사나   | 이여도사나  |

54) 필자 채록,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2004. 11. 13. 윤미자, 여·71세.

55) 이성훈, <민요 제보자의 생애와 사설>, 《白鹿語文》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p. 325.

이여사나<sup>56)</sup>

[15]

|       |       |
|-------|-------|
| 이여사나  | 이여사나  |
| 이여도사나 | 이여사나  |
| 어딘 가른 | 고동 전복 |
| 많은 딜로 | 가나 보까 |
| 저어라저라 | 이여도저라 |
| 잘도 간다 | 우리 배는 |
| 잘도 간다 | 이여도사나 |
| 이여사   | 저라저라  |
| 이여저라  |       |

|                      |        |
|----------------------|--------|
| 저 바다엔                | 물이 췌여서 |
| 올라 갈라꼬 허문            | 힘들겠다   |
| 이여차                  | 우리 배는  |
| 잘도 간다                | 이여도사나  |
| 이여도사나                | 저어라저라  |
| 잘도 간다 <sup>57)</sup> |        |

<해녀 노 짓는 소리>는 8분의 6박자의 선율로 가창하는 게 일반적이다. 즉 한 마디는 1음표 6개로 이루어지므로, 가창할 때는 적절한 음절의 수는 6개 정도가 적절하다. 그런데 [11]의 제보자인 윤미자는 한 마디로 가창할 수 있는 6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구를 3음절의 2개의 단어로 나누어 두 마디로 가창했다. “바람은 / 불수록 // 찬질만 / 나고요”가 그것이다. 또한 5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구까지도 2개의 단어로 나누어 가창했는데, “임은 / 불수록”이 그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가창하는 게 일반적이다.

56)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짓는 노래> 조사>, 《韓國民謠學》 第11輯, 韓國民謠學會, 2002, p. 260.

57) 필자 채록, 경남 사천시 동금동, 2005. 1. 10. 윤계옥, 여·77세.

바람은 불수록                      찬질만 나고요  
 입은 불수록                      깊은 정만                      드는구나

이처럼 율미자는 악곡구조로 볼 때 한 마디로 가창할 수 있는 사설을 두 마디로 나누어 가창했다. 이러한 양상은 후렴구인 ‘이어도사나’를 가창할 때도 한가지였다. 즉 <해녀 노 젓는 소리>의 후렴구는 “이어도사나”, “이여사나” 등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11]의 제보자 율미자는 후렴구를 “이어사나”, “이어도사나”라고 부르다가 “이여도 / 사니야”라고 부른 것이 그것이다. 이는 앞장에서 후렴구의 변이양상으로도 살펴본 것이다.

뚝배가 물결을 헤치며 나가는 모습은 고정적 사설로 굳어진 [13]의 “우리 배는 / 잘도나간다 // 솔솔 가는 / 소나무배야 // 잘잘 가는 / 잣나무배야”나 [14]의 “잘잘 가는 / 잣나무 배야 // 솔솔 가는 / 소나무 배야 // 우리나라 배는 / 잘도 간다”와 같이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2음보 3행 형식의 관용적으로 표현으로 노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12]의 제보자인 율미자는 “우리 배는 / 솔나무 배가 // 소리솔솔 / 잘 넘어가고 // 느그나 배는 / 참나무 배가 // 차리찰찰 / 잘도 간다”와 같이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2음보 4행 형식으로 확장시켜 노래했다. 다시 말해서 [13]과 [14]와 같이 3개의 문장으로 된 3행 형식의 사설을 [12]와 같이 2개의 문장으로 된 4행 형식의 사설로 확장시키면서 ‘1행, 2행’과 ‘3행, 4행’이 대구형식이 되게 노래했다. 즉 “우리 배는”과 대구가 이루어지도록 “느그나 배는”을 덧붙이고, “솔솔 가는”과 “잘잘 가는”을 “소리솔솔 / 잘 넘어가고”와 “차리찰찰 / 잘도 간다”와 같이 2음보의 사설로 확장시켜 두 마디로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율미자는 가창 능력과 사설 창작 능력과 가창능력이 뛰어난 적극적 창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13]과 [14]는 뚝배가 달리는 모습을 의태어 “솔솔”, “잘잘”로 표현한 다음에 뚝배의 만든 재료인 “소나무”, “잣나무”를 노래한다. 즉 ‘솔’과 ‘잘’의 음성적 반복을 통해 음악적 리듬감을 준 다음에, 배를 만든 나무 재료인 소나무의 /소-, 잣나무의 /잣-/이라는 유사한 음절 반복을 통해 작업장까지 저어가는 배의 속도감을 음성 상징

으로 표현<sup>58)</sup>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서 [12]는 돛배의 나무 재질을 먼저 노래한 다음에 돛배의 속도감을 의태어 “소리 솔솔”, “잘잘”을 사용하여 노래했다고 본다면, 달리는 배의 속도감을 어순을 바꿔서 노래하는 변이양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

[15]는 윤계옥(여·77세, 경남 사천시 동금동)이 가창한 사설이다. 제보자 윤계옥은 후렴 “저어라저러 / 이어도저러”를 부른 후에 “잘도 간다 / 우리 배는 // 잘도 간다 / 이어도사나”만을 가창하고 더 이상 사설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의 의미단락은 [13]과 [14]에서 보는 것처럼 “잘잘 가는 / 잣나무 베야 // 솔솔 가는 / 소나무 베야”와 같은 사설에 “우리나 배는 / 잘도 간다”라는 사설이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15]의 제보자 윤계옥은 “잘도 간다 / 우리 배는 // 잘도 간다”라는 사설만을 부른 후에 후렴구 “이어도사나”만을 가창했다. 이는 윤계옥이 “잘도 간다 / 우리 배는 // 잘도 간다”라는 사설에 이어지는 사설 내용을 망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윤계옥은 재능이 적어서 전승을 잘 보존하지 못하며 창작력도 빈약한 소극적 창자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미자는 악곡 구조로 볼 때 한 마디로 가창되는 게 일반적인 사설을 두 마디로 나누어 가창하기 위해 사설 내용을 확장시키고 있다. 결국 윤미자는 사설 창작 능력과 가창 능력이 뛰어난 적극적 창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제보자라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서부경남지역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전승과 변이양상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논의한 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해녀의 본토 출가는 1889년경에는 靑山島를 비롯하여 완도, 부산, 영도, 거제도, 남해의 돌산, 기장, 울산, 경북 일대까지 出稼했다. 제주 해녀들의 본토 출가물질은 늦어도 19세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시

58) 이성훈, <민요 제보자의 생애와 사설>, 《白鹿語文》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p. 326.

작되었고, <해녀 노 젓는 소리>도 이 때부터 본토로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부경남지역 중에 거제시와 사천시의 경우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가창기연인 돛배의 노 젓는 노동은 1960년대 말까지 이어졌고, 그 후는 동력선의 등장으로 단절되었다.

서부경남지역에 정착한 제주출신 해녀들이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주도에서 낚물질 나갈 때 물질작업장까지 헤엄쳐 가며 배운 경우와, 다른 하나는 본토에 출가해서 뱃물질 나갈 때 노 저으며 배운 경우가 그것이다. 서부경남지역에 정착한 해녀들의 대부분은 제주에서보다는 본토에서 배운 게 대부분이다.

제주도에서 낚물질 나갈 때 헤엄치며 <해녀 노 젓는 소리> 배운 계전부인 해녀들은 단편적인 내용의 사설을 가창했다. 해변에서 연안의 물질작업장까지 헤엄쳐 나가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해녀 노 젓는 소리> 구연 시간이 짧고, 구연 현장인 바다가 물결이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토에서 물질작업장까지 돛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서 하는 물질인 이른바 ‘뱃물질’ 하러 갈 때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운 해녀들은 비교적 풍부한 내용의 사설을 가창했다. 서부 경남지역에서는 연안에 산재한 섬으로 뱃물질 나갔기 때문에 가창기연인 노 젓는 시간이 길었다는데 기인한다. 다만 창자의 특성에 따라 구연한 사설 내용이 풍부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제보자의 사설 창작 능력 및 가창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서부경남지역에 전승되는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은 체언, 용언의 연결어미, 조사가 변이되는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후렴구도 변이되는 양상을 보였다. “배울라꼬·시길라꼬·술가야” 등의 용언 어미와 조사, “나를 놓아·쏟아 뺐네” 등의 용언, “끝아 끝아·필 작에는·보리뎌물” 등의 체언이 변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후렴구인 ‘이여도사나’를 2음보격으로 “이여도 / 산이야”로 변이시켜 가창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보자가 제주도에서 출생했다라도 경상남도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거나, 경상남도에서 출생하고 잠시 제주도에서 생활했을지라도 부모의 고

향이 경상남도인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경상남도방언을 익히게 되는 언어적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을 경상남도 방언으로 구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종순은 고정적 사설로 전승되는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설에 새로운 사설 내용을 덧붙여서 대구 형식의 완결된 구조로 사설을 창작하여 가창할 수 있는 적극적 창자였다. 윤미자는 악곡 구조로 볼 때 한 마디로 가창되는 게 일반적인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설을 두 마디로 나누어 가창하며 사설 내용을 확장시킨 것은 사설 창작 능력과 가창 능력이 뛰어난 적극적 창자라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康大元, 1973,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 강진옥, 1998, <여성 민요 창자 정영업 연구>, 《口碑文學研究》 제7집, 한국구비문학회.
- 강원도 동해출장소, 1995,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 강원도.
- 강한호, 1999, <해녀 민속 문화의 이동에 관한 연구 -경남 사랑도의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金料白, 1929, <女人國巡禮, 濟州道海女>, 《三千里》 創刊號, 三千里社.
- 金榮敦·金範國·徐庚林, 1986,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金榮墩, 1993,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民俗苑).
- 김영돈, 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 나승만, 1996, <신지도 민요 소리꾼 고찰>, 《도서문화》 14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나승만, 1997, <노화도 민요 소리꾼들의 생애담 고찰>, 《도서문화연구》 17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나승만, 1998,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 조사와 사례 분석>, 《口碑文學研究》 제7집, 한국구비문학회.
- 나승만, 1998, <삶의 처지와 노래 생산 양식의 상관성>, 《島嶼文化》 제16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나승만, 2003, <전남 내륙지역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 분석과 전통민요의 전승

- 맥락>, 《우리말글》 통권27호, 우리말글학회.
- 朴清正, 1998, 《물때》개정증보판, 일중사.
- 부산남구민속회, 2001, 《남구의 민속과 문화》, 부산남구민속회.
- 申斗憲, 1961, <濟州島民謠의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語文研究室, 1993, 《韓國方言資料集Ⅷ》(慶尙南道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0,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집》, 울산대학교출판부.
- 乙 人, 1923, <盈德은 엇더한 지방?>, 《開闢》 제39호, 開闢社.
- 李 健, 金泰能 譯, 1976, <濟州風土記>,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 李東赫, 2001, 《江原 民謠의 世界》, 국학자료원.
- 이성훈, 1987, <민요 제보자의 생애와 사실>, 《白鹿語文》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 이성훈, 2002,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짓는 노래> 조사>, 《韓國民謠學》 第11輯, 韓國民謠學會.
- 이성훈, 2002,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사실과 현상성>, 《溫知論叢》 제8집, 溫知學會.
- 이성훈, 2003,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崇實語文》 第19輯, 崇實語文學會.
- 이성훈, 2003, <<해녀 노 짓는 노래>의 가창방식>, 《溫知論叢》 第9輯, 溫知學會.
- 李元鎮, 김찬흡 외 7인 譯, 2002, 《譯註 耽羅志》, 푸른역사.
- 李益泰, 金益洙 譯, 1997, 《知瀛錄》, 濟州文化院.
- 李 增, 金益洙 譯, 2001,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구술(口述)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도.
- 濟州方言研究會, 1995, 《濟州語辭典》, 濟州道.
- 趙東一, 1983, 《敍事民謠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 현우종, 1988, <제주도 방언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耽羅文化》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玄平孝, 1985, 《濟州島方言研究》 論攷篇, 二友出版社.
- 김영·양장자, 정광중·좌혜경 譯, 2004,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도서출판 각.
- 泉靖一, 洪性穆 譯, 1999, 《濟州島》, 濟州市愚堂圖書館.